

공생·공영·공의의 세계평화운동

Universal Peace Federation

ONE FAMILY UNDER GOD



천주평화연합
Universal Peace Federation



천주평화연합
Universal Peace Federation





천주평화연합(天宙平和聯合, Universal Peace Federation)은,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창설선언으로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 194개국 천주평화연합 지부는 매년 세계공동의 활동 방향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월드서밋(World Summit)과 국제지도자회의(ILC: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학자 총재의 창립발의로 출발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은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초종교 초국가적 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창설 이래 꾸준히 진행해 온 국제적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2018년 7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단체로 승인되어 광범위한 NGO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o-existence

공생

Co-prosperity

공영

Co-righteousness

공의

공생·공영·공의를 통한
세계 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



Greeting

천주평화연합(UPF)은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을 초월
인류 한가족의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공생·공영·공의를 모토로 평화운동을 전개

Co-existence
Co-prosperity
Co-righteousness



의장 문 연 아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궁극적인 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류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향한 꿈을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열어갈 순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UN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은 지난 2005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에 의해 창설된 이후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 한가족의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공생·공영·공의를 모토로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평화세계 구현을 위해 한학자 총재님에 의해 제안되어지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피스로드' 프로젝트와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은 많은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비전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정상급 국가지도자들과 정치, 종교, 학술, 언론, 경제 등 각 분야별 평화NGO 단체들의 평화구상을 공유해 온 본 연합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연대활동과 월드서밋(World Summit), 그리고 국제지도자회의(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등 다각적인 국제활동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끄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주평화연합은 UN을 무대로 한 광범위한 국제활동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사)한국종교협의회, 사)자원봉사애원, 사)세계평화교수협의회, 사)세계평화무도연합, 학교법인 선학학원, 효정학술재단, 한국대학원리연구회 등 통일단체와 종교, 학술, 문화, 봉사단체 그리고 여성, 청년학생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영역에서 협력을 다지며 평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UNIVERSAL PEACE FEDERATION 주요 프로젝트

세계평화정상연합 (ISCP,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

지구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적 난제를 극복하고 평화세계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국가정상들의 뜻이 모여 창설된 글로벌 평화네트워크.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공생·공영·공의를 기반으로 한 인류 한가족의 보편적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정상연합은 세계평화정상회의(World Summit)를 비롯하여 국제지도자회의(ILC,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종교간 리더십 콘퍼런스(IRLC, Interreligious Leadership Conference) 및 종교간 평화구축을 위한 협의회, 중동 평화이니셔티브(MEPI), 동북아평화이니셔티브, 발칸반도 평화이니셔티브 등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종교, 외교, 안보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for Peace)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영토분쟁과 테러, 종교 및 인종 갈등, 기후변화와 빈곤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공생·공영·공의의 항구적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평화협의체로 2016년 2월, 41개국 현직 국회의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113개국 현직 국회의원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된 IAPP 2017 세계총회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구하는 '세계평화국회의원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2018년 세네갈 정부와 공동개최한 아프리카 월드 서밋에서는 마키 살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리카 54개국 정상과 수상,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등 1,200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철도와 도로를 잇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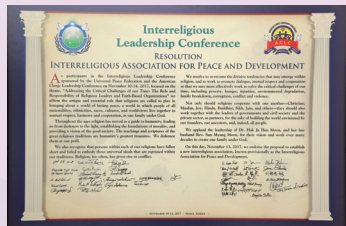
IAPD, Interreligious Associa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Interreligious Associa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현재의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세계평화에 있어서 종교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 50여 년간 한국종교협의회와 미국성직자협의회(ACLC)를 통해 초종교 초교파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00년 UN본부에서 유엔산하 초종교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며, 2015년 오스트리아 빈 유엔사무국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 종교간 이해와 화해를 위한 세계평화경전(World Scripture)을 편찬하고 세계의 화약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중동 평화기원 대행진을 추진하며 종단과 종파간 화합과 협력을 위한 중동평화 이니셔티브(MEPI)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7년 세계 20여 종단 종교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결성되었으며 2018년 한국결성대회를 비롯해 5개 지구별 결성대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영성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A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s for Peace

세계평화학술인연합

(IA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s for Peace)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서양간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며, 세계평화이념을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전 세계 석학들과 함께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적 토론과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통일사상연구원(UTI), 세계과학기술연구소(WRIST), 세계평화교수협의회(PWPA),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효정학술재단 등 학술회의와 연구소를 발족시켜 지식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서울에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 상호간의 학제적 교류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생·공영·공의를 지향하는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을 창설했습니다.



세계평화언론인연합 (IMAP, International Media Association for Peace)

도이치레 창간과 세계평화 실현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의 확산을 위해 창설된 세계일보, 미국 워싱턴타임즈 그리고 일본의 세카이닛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언론인회의,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등 다양한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유와 인권의 인간 가치와 올바른 언론상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문선명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언론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여 공생·공영·공의의 평화세계 창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자 세계평화언론인연합을 창설하였습니다.

세계평화경제인연합 (IAE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경제적 기술적 평준화를 통해 차별없는 평화세계를 만들기위해 일생을 살아온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모두가 행복한 세계인 공생·공영·공의가 실현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체를 설립하고 해양개발을 통한 기아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문선명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경제 관련 재단 및 기업체 경영자들이 공생주의 가치 전파와 경제적 평준화를 목적으로 경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모색하며,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 2월 세계평화경제인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인 선언문' 채택과 세계평화경제인연합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평화네트워크 평화대사 (Ambassadors for Peace)

천주평화연합은 창설이후 세계평화와 초종교적 화해와 협력을 주제로 하는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세계적 지도자들이 평화대사(Ambassadors for Peace)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대사는 인종, 국가, 종교간의 장벽을 넘어 통일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가는 평화의 리더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의 모범을 통해 평화세계를 만들어 가는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120만 평화대사들은 아프리카 질병, 기아문제, 정치·종교 갈등 해소 대책, 국제 난민구호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기존 유엔을 갱신하여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평화유엔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5만여 평화대사들은 한국사회 발전과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UPF활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설립자 특별상 수상자



반기문

(Ban Ki-moon, 대한민국)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전 유엔 사무총장
인류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마스터플랜 제시

제4회 선학평화상 본상 수상자



무니브 A. 유난

(Munib A. Younan, 예루살렘)

전 루터교세계연맹 의장
구교와 신교 간 갈등극복과
종교화합의 선구자



마키 살

(Marky Sall, 세네갈)

세네갈 대통령
아프리카 굿거버넌스의 모델
아프리카 대륙의 화합 촉진

2015년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 인류의 미래 평화는 "바다"



아노테 통
(Anote Tong, 키리바시)



모다두구 비제이 곱타
(Modadugu Vijay Gupta, 인도)



지노 스트라다
(Gino Strada, 이탈리아)



사키나 야쿠비
(Sakina Yacoobi, 아프카니스탄)



와리스 디리
(Waris Dirie, 소말리아)



아킨우미 아데시나
(Akinwumi Ayodeji Adesina,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전 세계를 평화로 연결하는 120개국 통일대장정



피스로드 참여국가

- 아시아 25개국** 한국, 일본,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이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 중동 8개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
- 중남미 21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루이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유럽 29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산마리노,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 아프리카 2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베냉,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랜드, 앙골라,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 오세아니아 7개국**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피지, 호주

피스로드 기원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1981.11.10>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 회의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 의해 제안된 '국제평화하이웨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함으로써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지구촌 평화시대를 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피스로드 발자취

Peace Road 2013 / 2013년 8월 3일~8월 23일

한반도 통일과 DMZ 세계평화공원 실현을 위한
한일 3,800km 자전거 국토종주

Peace Road 2014 / 2014년 3월 24일~8월 12일

한반도 통일과 DMZ 세계평화공원 실현,
2014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 World Tour

Peace Road 2015 / 2015년 5월 30일~8월 30일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공원 실현, PEACE ROAD,
세계 120개국 통일대장정

Peace Road 2016 / 2016년 5월 30일~8월 30일

국민과 세계의 힘 모아 통일의 길을 열자
120개국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Peace Road 2017 / 2017년 2월 2일~8월 30일

통일의 길! 평화의 길! PEACE ROAD 2017
세계 125개국 통일대장정

Peace Road 2018 / 2018년 4월 20일~8월 30일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길을 열자!"
One Korea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Peace Road 2019 / 2019년 6월 21일~8월 15일

국민과 세계인의 힘 모아 통일의 길을 열자!
피스로드 2019 통일대장정

Peace Road 2020 / 2020년 7월 17일~8월 30일

6.25전쟁 70주년
One Korea Peace Road 2020 통일대장정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의 길을 열자!
PEACE ROAD
한반도 통일대장정

One Korea, One World